

여수! 2012 성공 향해 뚝다

파리=홍행기 기자

여수가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여수는 27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팔레 드 콩그레에서 열린 제 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모로코를 결선투표 끝에 77대 63으로 물리치고 2012엑스포 개최권을 확보했다.

140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개최지 결정 1차 투표에서는 여수가 68표, 모로코 탕헤르가 59표, 폴란드 브로츠와프가 13표를 얻어 가장 낮은 득표를 한 브로츠와프를 제외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의 대전이 1993년 개최한 바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개최 경험을 갖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도 2010년 엑스포를 유치해놓고 있다.

오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동안 여수 신항 일대 박람회 부지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시의적절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홍수와 해일 등 자연재해도 해양환경 보존과 해양기술 개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여수박람회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특히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반면 모로코는 '세계의 길, 문화의 만남', 폴란드는 '세계 경제에서의 여가문화'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제 선정으로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주제의 우수성이 엑스포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친환경 엑스포라는 여수박람회의 대전제를 견지하려면 단순히 전남과 경남을 관통하는 남해안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국내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보다



27일 새벽(한국시간) 2012 여수세계엑스포 유치가 확정된 직후 제142차 BIE총회장인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 앞에 마련된 여수홍보관에서 박준영(왼쪽에서 네번째) 전남지사와 강우현(왼쪽에서 다섯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파리=광주·전남사진기자단

“여수 꼬레” 어제 새벽 엑스포 유치 성공 2차 투표서 모로코 탕헤르 77대 63 눌러

업 등 민간부문이 총력전을 펼 산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수박람회를 직접 챙기고, 해양수산부·외교통상부는 당면 현안으로 정해 유치를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김재철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과 정몽규 명예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

장 등은 여수엑스포 선봉장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2012 여수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전남도와 여수시 대표단은 28일 여수공항을 통해 귀국해 도민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여수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범국민보고대회'를 오는 30일 여수에서 개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은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박람회 유치 과정을 설명하고 상원혜준 국민들과 여수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redplane@kwangju.co.kr

다"고 특검법 수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특검법은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가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결탁, 대통령을 흔들고 당리당략적인 판단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황포며 지위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수용 입장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

盧대통령 “삼성 특검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20일간의 준비기간

을 거쳐 대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면>

27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로 이끌자

이젠 여수가 세계에 답할 때



광주·전남 시·도민의 10년 숙원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마침내 성공했다. 여수박람회는 전남 발전과 한국경제 재도약은 물론, 해양환경보존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의미를 지닌 여수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과 방향점, 향후 갖춰야 할 법적·제도적 틀 등을 짚어 본다.

‘인류 공동 발전’ 약속에 국제사회가 준 큰 선물

“국내 시각 벗고 글로벌 이벤트로 준비해야”

여수가 모로코의 고도 탕헤르를 물리치고 박람회 개최권을 따낸 것은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시의적절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홍수와 해일 등 자연재해도 해양환경 보존과 해양기술 개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여수박람회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특히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반면 모로코는 '세계의 길, 문화의 만남', 폴란드는 '세계 경제에서의 여가문화'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제 선정으로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주제의 우수성이 엑스포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친환경 엑스포라는 여수박람회의 대전제를 견지하려면 단순히 전남과 경남을 관통하는 남해안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국내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보다

크고 높은 이념과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이벤트'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이다.

10여년의 노력 끝에 따낸 여수박람회는 인류의 공동발전을 약속하며 손을 내민 우리에게 국제사회가 준 크나큰 선물이다.

정부가 전세계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계에 공약한 1천만달러 규모의 여수프로젝트 약속 준수는 물론, 엑스포 개최국에 걸맞는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규모를 늘려야 한다. 여수박람회를 친환경적 이면서도 선진기술을 활용해 인류에 남기는 대회로 치러 엑스포 개최 기회를 준 세계인들에게 보답하는 것도 큰 과제다.

엑스포는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자리에 비교 전시해 인류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이다. 여수박람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풍요로움과 인간적인 삶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요구도 일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

지면안내

- SOC 지원은 2면
- 여수시민이 해냈다 3면
- 유치 성공 뒷얘기 4면
- 미리 보는 엑스포 5면
- 유치 주역 인터뷰 6면
- 기대부담 지역업체 13면
- 이들이 있었기에 20면

유일학원 장학 6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062-220-1111 ~ 1114
 062-220-1115 ~ 1116
 새해도 남서기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062-220-1111 ~ 1114
 062-220-1115 ~ 1116

어제 새벽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 호외 발행했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
 온도민의 해나 된 마음과 힘이 이루어 냈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